

‘오픈프라이스’ … 유통업체별 과자·빙과류 가격 비교해보니



부라보콘 최고 1250원 차이

부라보콘은 최저가 750원, 최고가 2000원으로 나타나 125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롯데 월드콘’도 최저 894원에서 최고 1882원에 판매돼 988원의 차이가 있었다.

순천의 경우 과자류 중 ‘해태 에

미민인 이들 품목은 2010년 오픈프라이스 품목으로 포함됐다가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곳을 찾지 않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돼 1년 만인 지난 7월 제외 품목으로 고시됐다.

광주·순천·여수YWCA 4개월 조사

소비자 대부분 제도 시행 조차 몰라

꼼꼼한 가격비교 후 물건 구입해야

이스’가 최저 800원, 최고 1800원에 판매돼 1000원의 가격차가 있었고, 여수는 ‘롯데 칙촉오리지널’이 1000원에서 2400원까지 거래돼 1400원의 가격차를 보았다.

조사 대상 중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대부분 아이스크림으로 나타났고 라면과 과자류는 평균 300원의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2000원

실제 YWCA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대형 할인점(40.8%)보다 가격이 더 비싼 중소형 슈퍼마켓(41.7%)이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2%, 모르겠다는 응답은 53.7%로 나타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오픈프라이

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이후 과자와 빙과류 등의 ‘가격이 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0.2%에 달했다. 광주YWCA 관계자는 “오픈프라이스 취지가 무색하게 판매처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가 2000원 미만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기는 쉽지 않지만 꼼꼼한 가격비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가격정보 제공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광주YWCA는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광장과 순천, 여수 등지에서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임동기자 exian@kwangju.co.kr

‘광세기의 창조’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국제광기술컨퍼런스

10월 4일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서 열려

국내 유일의 광(光)산업 전문 전시회인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제10회 국제광기술컨퍼런스(Photonics Korea & IPTC 2011)’가 다음달 4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광세기의 창조’라는 주제로 독일 레오니·일본 수미타 등 글로벌 해외업체 20여 곳과 LG이노텍·동부리이케 등 국내업체 130여 곳이 참여해 광산업 관련 최신 기술과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호남광역선도산업 연구개발 참여 기업들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수출 컨소시엄 공동관을 마련해 러시아 진출 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하고, 수출 상담회도 연다.

또 LED를 활용한 조명특별전시관

을 조성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LED의 효용성과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 곳에서는 매일 네차례 ‘LED 라이팅 쇼’도 펼친다.

한·일·네덜란드 농생명 LED 공동 세미나와 광산업 100억 CEO포럼도 개최한다.

국제광기술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광관련 전문가들이 8개 주제로 차세대 광기술 및 응용기술 등장에 대해 토론한다.

조규종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광관련 정보와 기술 교류, 투자 유치, 수출 상담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구매력을 갖춘 양질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 실질적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환경 그린카 타보세요”

내일부터 DJ센터서 2011 국제그린카전시회

5개국 129개 업체 참여

미래 교통수단을 대체할 친환경 그린카 전시회가 28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6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수소 연료전지차, 클린디젤부품 등 친환경·저공해 그린카 산업을 대표하는 ‘2011 국제그린카전시회(Green Car Korea 2011)’가 28일부터 30일 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코트라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5개국에서 129개 업체가 참여해 345개 부스를 운영한다. 또 12개 국 61개 업체, 74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도로에서는 전시기간 동안 ‘볼트’와 ‘블루온’, ‘투싼 ix’ 등 그린카를 직접 타 볼 수 있다.

‘블루온’을 비롯, GM ‘볼트’, 지엔디원텍의 ‘아이-플러그(I-plug)’, 파워프라자의 쿠퍼형 고속전기차 ‘예쁘자나’와 2인승 3륜전기차인 ‘트와이’ 등이 선보인다.

수소연료전지차는 현대자동차의 ‘투싼 ix’와 ‘수소연료전지 버스’가 참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 을 선보인다.

클린디젤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R 2.2 VGT Engine’을 비롯해 쌍용자동차의 ‘Green Diesel Engine’, 두산인프라코어의 클린디젤엔진 ‘Tier 4 interim’ 등이 각각 출품된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도로에서는 전시기간 동안 ‘볼트’와 ‘블루온’, ‘투싼 ix’ 등 그린카를 직접 타 볼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장은 벌써 겨울

2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3층 여성의류매장에서 올 겨울 유행할 모피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한 고객이 모피재킷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대기업 채용 시장 ‘활짝’

여천NCC·금호아시아나·신세계 등 10여 곳 신규 직원 공채

채용 시장이 활짝 열렸다. 국내 대기업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여천NCC를 비롯해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동부그룹, 신세계, 신한금융투자 등 10여 곳이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인크루트에 따르면 다음달 금호아시아나와 대우조선해양, 동부그룹 등이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건설,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가 참여하며 다음달 6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대우조선해양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삼우중공업 등 계열사가 대상이며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한다.

동부그룹 공채에는 동부제철, 동부

메탈, 동부특수강, 동부반농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현대산업개발과 신세계도 10일까지 각각 신입사원을 뽑는다.

건설사들의 채용 일정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건설은 다음달 5일까지 플랜트·금융·인사부문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두산건설도 해외·플랜트 및 해외로봇경작·해외기계경작 등 분야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접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보험사와 신용카드사들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200여명을 공개 채용한다. 생명보험사 500여명, 손해보험사 350여명, 신용카드사 350여명 등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공채는 고졸까지 문호를 확대한 곳이 많아 고졸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생보사 중에 대한생명은 다음달 고졸 50명, 11월에 대졸 신입 150여명을 공개 채용하고, 삼성생명은 100여명의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 27명의 대졸 신입을 선발한 미래에셋생명은 11월에 20여명을 주가로 공채하며 경력 또는 고졸 사원 채용도 준비하고 있다.

손보사에서는 동부화재가 80여명의 대졸 신입 공채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한화손해보험은 11월에 80명을 공채하는데 학력과 짜지지 않고 채용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타이어 8위·금호타이어 12위

글로벌 타이어 업계 순위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타이어 업계 순위에서 각각 8위와 12위를 차지했다.

26일 미국의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 비즈니스(Tire Business)’가 조사한 글로벌 타이어 기업 순위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타이어 시장 규모

는 2009년 대비 약 20% 성장한 15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2009년 대비 약 20% 증가한 45억1300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에서 연속 8위에 올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대비 30% 성장한 30억2500만 달러의 글로벌 매출로 2009년 13위에서 한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652.71 (-44.73)
코스닥지수
409.55 (-36.96)
금리 (국고채 3년)
3.44% (-0.01)
원·달러 환율
1195.80원 (+29.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친신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새로운 개념의
MY-MO 않는거같은 미이모
효자가발 세일 39만원



특수가발 대여!!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 영화 기법을 이용한 Front 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내머리 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MBC SBS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

유동
우리은행
현대극장
금호종합금융
금호화재
광고
도청
마이모
(남선별당 409호)